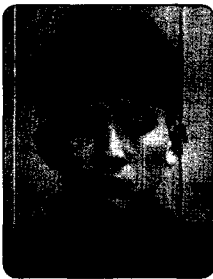


##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촉진방안



김 정 환

환경부 환경경제과 사무관

〈필자약력〉

-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제36회 기술고시 합격
-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
- 現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 I. 환경산업의 동향

환경산업은 그간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나 사후정화와 관련된 제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해방지사업'이라는 협의의 범주로 이해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위주로 청정생산, 자원절약·재생, 환경친화제품 등으로 환경산업의 범주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세계 환경산업의 시장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과 환경문제가 연계되면서 환경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환경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은 정보통신, 바이오산업과 함께 환경산업을 21세기 유망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세계 환경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국내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가 어느 정도 완비되어감에 따라 2010년 이후에는 내수 환경시장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환경산업 역시 해외시장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II. 세계 환경시장의 현황과 전망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WTO의 무역-환경 연계추세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은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에 전망되고 있다.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에 따르면 세계 환경시장은 2000년 5,180억불에서 2005년 7,097억불, 2010년에는 8,635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등 아시아의 개도국 환경시장은 급격한 산업화와 국민들의 환경욕구가 증대하면서 13~15%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 하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경우에는 15~20%대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1990년대 들어 세계 환경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에 주력하면서 전체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세계 환경시장 점유율(2000년)〉

국 가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영 국	이태리
점유율(%)	37	18	11	7	4.7	3
금액(억불)	1,917	932	570	363	243	155

국 가	네덜란드	한 국	덴마크	기 타	합 계
점유율(%)	2	1.6	1	14.7	100
금액(억불)	104	82	52	762	5,180

\* 자료출처 : 영국 JEMU(Joint Environmental Markets Unit), 2002

## III. 국내 환경산업의 현주소와 가능성

지난 2002년에 조사한 환경산업체 현황조사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국내 환경산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10조4635억원으로 국내총생산액의 2.0%에 해당되고 있다. 국내 환경시장의 규모는 2005년 19조원, 2010년 32조원으로 연평균 12% 내외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환경자원이용업과 청정기술, 환경서비스업 분야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엔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 소관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18개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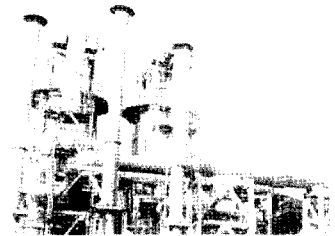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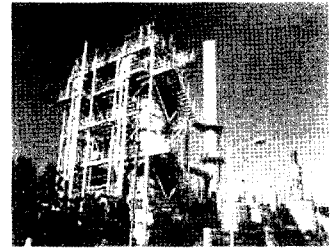
(세분류시 44개 업종)에 따른 환경산업체의 수는 2002년 말 현재 12,167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자본금, 매출액 규모면에서 영세한 구조적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폐수 처리, 집진처리 등 사후처리 기술분야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70~80% 수준으로 산업화 단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우리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IT) 및 바이오산업(BT)와 접목될 경우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중국, 동남아 등 주변 개도국의 환경수요 증대라는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환경산업의 구조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이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부문에 투자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 환경산업의 중요한 진출활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IV. 환경산업 발전전략의 수립·추진

환경부는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1992년부터 2001년간 총 3,573억원을 투자하는 'G-7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94년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2001년부터는 G-7 사업의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0년간 총 1조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에는 재경부 등 9개 부처 공동으로 『환경산업 발전전략(01~03)』을 수립하여 환경기술개발, 환경기초시설 투자확대 및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5개 분야 5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특히, 환경특수(特需)를 보이고 있는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 베이징에 '한국환경산업·기술 상설전시관'을 개관하여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정보제공, 투자상담 및 기술전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시장 진입에 구심점이 되고 있다. 2003년 7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으로 열린 환경장관회의에서는 동 전시관을 양국이 공동 운영키로 합의하였으며, 그 해 10월에 '한·중 환경산업센터'로 기능을 개편하면서 양국 환경인의 교류 및 정보공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03년 9월부터 호북성, 산둥성, 요녕성 및 사천성 등 시장전망이 높은 지방성을 대상으로 중국지방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환경산업·기술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중국 관계자 초청연수, 공동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업체의 중국 진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금년 6월에는 『환경산업 對중국 진출 촉진전략』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2001년부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신흥 환경수요국을 대상으로 민·관 공동 『환경산업협력단』을 파견하여 해외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국제전시회에도 참가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작년 한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은 총 5,819억원으로 2002년 4,018억원에 비해 약 45%가 증가하였으며, 진출업체의 수 역시 2002년 89개에서 117개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환경산업의 해외수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 V.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해외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기반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201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동 전략은 대략 국내 환경수요의 지속적인 창출, 유망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서비스업의 중점 개발 및 환경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방안들을 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내 환경산업 활성화 시책과 병행하여 대상 국가별,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해외 환경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환경산업 對중국 진출 촉진전략』을 토대로 산둥성, 북경시 등 10개 최우선 진출지역에 공동 시범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의 직접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진출거점을 마련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금융 등 다양한 금융지원의 활용과 공동기술개발, 지방거점 확보 등의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정보 수집이 어렵고 인지도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에는 『한·중 환경산업센터』를 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로 이전하고 양국의 환경 관계자들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마당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환경시장·기업정보 조희망을 구축하여 중국의 시장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중국 기업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환경산업·기술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중국 지방순회설명회, 중국 공무원 초청연수프로그램, 한·중 공동기술개발 등의 마케팅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수요가 급증하는 동남아시아 환경시장의 경우에는, 기존 『환경산업협력단』의 국제전시회 파견에서 더 나아가 대상 국가별로 『환경산업협력회의』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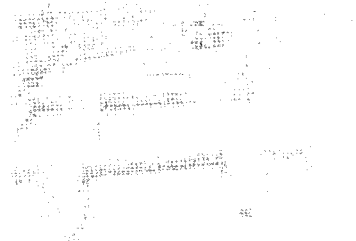
하고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출 거점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IP(Information Provider) 운영을 통해 현지 시장정보와 국제기구의 지원사업 등 투자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지원기능을 중남미, 동유럽, 러시아 등 시장전망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 밖에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선진기술 및 각종 규제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우리가 기술·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상술한 대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의 수출과 밀접한 정부기관 및 KOICA, 수출입은행, 대한상의 등의 유관기관과 환경산업체 관계자로 '환경산업 해외진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 환경시장의 판도가 향후 10년

이내에 짜여질 것이므로 향후 4~5년이 우리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성공여부를 정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대책과 아울러 기업차원에서도 기술개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지기업 제휴, 컨소시엄 구성, 국제기구 지원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진출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시점이다.



### 산업환경 네트워크 안내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생이 가능한 산업부산물을 수요·공급업자들이 사이비공간에서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해 산업부산물을 손쉽게 거래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각종 환경경영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한상의 산업환경 네트워크(<http://env.korcham.ne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이트는 산업부산물 배출업체 또는 수요업체 쌍방이 언제든 재생이 가능한 산업부산물의 배출과 수요정보를 입력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적절한 거래상대를 찾을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처리·재생업체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산업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정보를 통해서 환경친화경영, 국제환경동향, 국내환경정책, 지역환경개선, 환경일반 등 각 부문별로 데이터베이스(DB)화된 각종 환경관련 자료를 열람 및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 산업환경 네트워크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사이트명	대한상의 산업환경 네트워크
도메인명	<a href="http://env.korcham.net">http://env.korcham.net</a>
주요정보	산업부산물교환정보, 처리/재활용처리업체 리스트, 환경경영정보, 기업환경건의센터, 주간 '대한상의 산업환경 다이제스트'
주요특징	등록비·연회비·거래수수료가 전혀 없는 무료정보사이트

\* 동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대한상의 산업환경팀(TEL. 02-316 3485, FAX. 02-775 2919, E-mail. [green@korcham.net](mailto:green@korcham.net), 담당자. 조운택)으로 연락하여 시스템 안내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